

보도 일시	2022. 7. 27.(수) 14:00	배포 일시	2022. 7. 27.(수) 09:00
담당 부서	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	책임자	과 장 이지연 (042-481-372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주 (042-481-3736)

제9회 통계청-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

-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구통계: 센서스 자료, 방법론, 그리고 출산율 -

- 통계청(청장 한훈)은 22개국 인구통계 실무자 및 연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「제9회 통계청-UNFPA 인구 서머세미나(The 9th KOSTAT-UNFPA Summer Seminar on Population)」를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전과 서울,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개최한다.
 -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(EWC)에서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.
 - 한국 통계청은 2013년부터 아시아·태평양 지역 인구통계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했고,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(UNFPA)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.

-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저명 인구통계 전문가 4명을 초청,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제인 저출산·고령화·이민자 등 다양한 인구문제에 관한 논의 및 분석을 통해 인구통계 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 - 기조연설을 맡은 UNFPA 레이첼 스노우(Rachel Snow) 인구개발국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전세계 2020 라운드 인구센서스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.
 - 유엔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, 2020년경 센서스 실시 예정이었던 전세계 110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5개국만이 계획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.
 - 한국의 경우 ▲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, ▲응답자가 언제 어디서나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답채널의 다양화(PC·모바일·전화 등),

▲조사원용 태블릿PC 도입 등 디지털 조사 확대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- 이외에도 30여개국 출산율 자료를 토대로, 코로나19 이후 선진국의 출산율은 감소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급증했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.

○ 이어 스페인(바스크대)·중국(상하이대)·한국(국민대) 등 세계 각지의 석학을 초빙하여 3차에 걸친 인구학 강의를 진행한다.

- 회차별 주제는 “R을 이용한 인구학(R in Demography)”, “이주 추정(Migration Estimation)”, “인구학 방법론”이며, 각각 1~2주씩 총 59시간의 강의를 이루어진다.

□ 특히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강 채널 및 교육 대상의 폭을 넓혔다.

○ 전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과거 서머세미나와는 달리 대면·비대면 강의를 함께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했으며,

○ 특강은 내·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영·한 동시통역도 제공된다.

□ 한훈 통계청장은 “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·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인구통계 자료원, 방법론 및 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”면서,

○ “본 세미나가 역내 국가들의 인구통계 작성과 활용 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,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※ 붙임: 1. 제9회 통계청-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요
2. 세미나 프로그램 구성
3. 사진자료

□ 세미나명 : The 9th KOSTAT-UNFPA Summer Seminar on Population
제9회 통계청-UNFPA 인구 서머세미나

□ 일시/장소 : '22. 7. 27.(수) ~ '22. 8. 19.(금) /
대전(통계교육원), 서울(대한상공회의소)

□ 대 상 : 인구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, 대학원생 등

- 참가자 규모 : 22개국 200여 명

□ 배 경

- 197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동서문화센터(EWC)에서 주관하여 매년 아·태 지역 내 국가의 인구통계 전문가 또는 인구통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Summer Seminar를 개최
- 2013년 6월에 EWC의 인구 활동 기능이 한국으로 이관된 이후 한국 통계청에서 2014년부터 매년 인구 서머세미나를 개최해 왔음

□ 목 적

- 세계 각국의 인구·보건 분야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함
-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 수강과 토론을 통해 아·태 지역 인구통계 실무자 및 연구자의 인구통계 역량 함양

□ 2022년 Summer Seminar 프로그램 소개

○ 주 제

- ① 특별강의: 코로나19 상황과 유엔인구기금의 인구통계 관련 역할 및 전략
- ② 제1차 과정: R을 이용한 인구학(R in Demography)
- ② 제2차 과정: 이주 추정(Migration Estimation)
- ③ 제3차 과정: 인구학 방법론

○ 세미나 진행

- 공식언어 : 영어 및 한국어
 - 강의시간 : 주제별로 1~2주간 (실습 포함 총 59시간)
 - 수강생 : 각 과정당 30명 내외*
 - 국내외 인구통계 전문가(또는 공무원) 및 대학원생 등
- * 실습 진행 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제한된 규모로 운영(특강 제외)

○ 세미나 구성 및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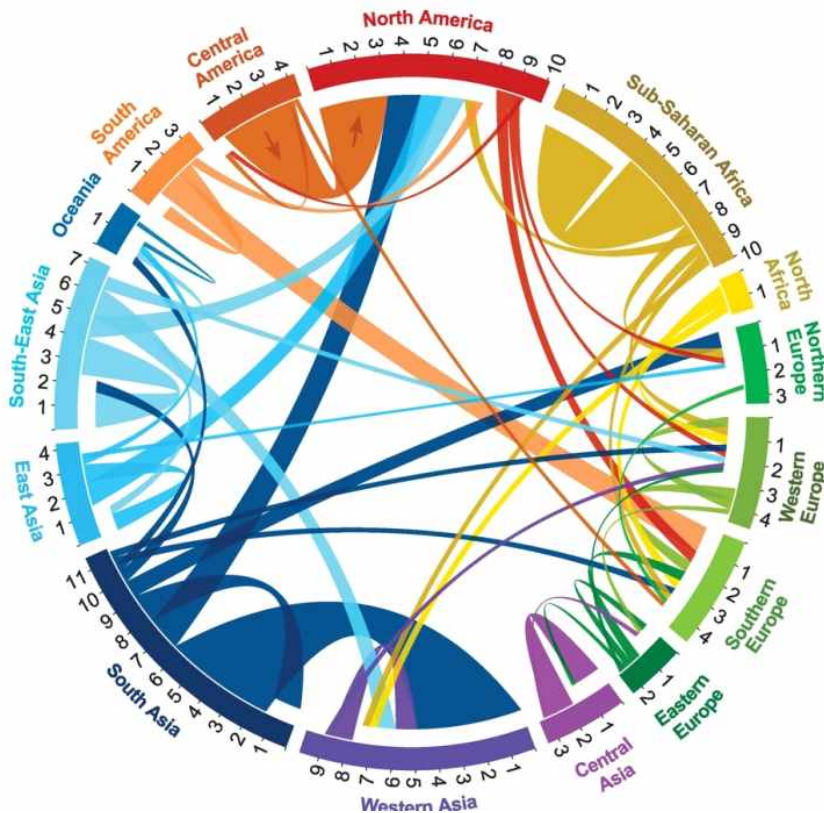
구분	특강	제1차 과정	제2차 과정	제3차 과정
기간	7.27.(수)	7.27.(수)-8.05.(금)	8.08.(월)-8.12.(금)	8.16.(화)-8.19.(금)
강사	Rachel Snow (UNFPA 국장)	Tim Riffe (바스크대학교)	Guy Abel (상해대학교)	계봉오 (국민대학교)
주제	코로나19 상황과 UNFPA의 인구통계 관련 역할 및 전략	R을 이용한 인구학 (R in Demography)	이주 추정 (Migration Estimation)	인구학 방법론
시수	2시간	24시간 ^{3시간x8일(주중)}	15시간 ^{3시간x5일}	20시간 ^{5시간x4일}
방식	대면+비대면 (하이브리드)		비대면 (온라인)	대면
장소	대전(통계센터)			서울(상공회의소)
언어	영어			한국어



Rachel Snow (Chief, Population and Development Branch, UNFPA)

▲ UNFPA 레이첼 스노우(Rachel Snow) 인구개발국장

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한 코드 다이어그램 (Chord Diagrams with Migration Data)



▲ 중국 상하이대 가이 아벨(Guy Abel) 교수 「이주 추정」 강의안 중 일부